

결과 해석 및 활용을 위한 매뉴얼

※ (학습스타일 진단 검사의 목적) • 학습스타일(learning styles)이란 우리가 공부/학습할 때 일반적으로 그리고 거의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방식(양식, 전략, 선호)을 말한다. 자신의 스타일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스타일로 쉽게 이동하여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공부는 재미있고 더 많이 성공할 수 있다. 어떤 스타일이 효과적인지는 공부의 장면과 과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공부의 장면과 과제는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기 때문이다.

* 이 검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요구하고 있다.

- “나는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 나는 공부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냐고 묻지 않는다.
- 나는 공부를 ‘어떻게’ 더 재미있게 잘할 수 있는가?
 - 공부를 ‘얼마나’ 잘 할 수 있는지는 사용하는 스타일의 방식에 달려있다.

• 이 검사에는 세 가지의 구체적인 목적이 있다.

- 첫째, 전체적인 학습의 과정과 방식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자신이 선호하여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학습의 ‘스타일’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 하고,
 - 공부/학습의 스타일, 즉 공부의 방식에는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둘째,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강점뿐 아니라 약점 까지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 어떠한 스타일도 모든 과제에서 가장 효과적일 수는 없다.셋째, 자신의 스타일의 **강점**은 자주 사용하여 더욱 자기 것으로 만든다. 그리고 대조적인 스타일은 의도적으로 연습/개발하여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도록 격려하고 가이드 한다.
 - 어떤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 (검사의 구성) • 이 검사에는 3개의 ‘학습의 과정요소’들이 있고, 이들 각기에는 대조적인 2개의 스타일이 있다. 그러므로 수검자의 학습스타일은 이들 3가지 과정요소별 스타일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예컨대 언어적 (지각/이해) 스타일 - 분석적 (정보처리) 스타일 - 개인적 (활동환경) 스타일(V-A-In 형) 등과 같은 것이다.

- 과정요소 #1: 지각/이해 양식의 선호
 - 언어적 스타일 vs 심상적 스타일
- 과정요소 #2: 정보처리 방식의 선호
 - 분석적 스타일 vs 전체적 스타일
- 과정요소 #3: 활동환경의 선호
 - 개인적 스타일 vs 집단적 스타일
- 각 과정요소별 스타일은 이론적 평균치 48점을 기준으로 정규분포곡선을 이루며, 최하점은 12점이고 최고점은 84점이다. 이론적 평균치 48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낮은 점수일수록** 더 강한 ‘언어적, 분석적 또는 개인적 학습스타일’이고, 오른쪽으로 **높은 점수일수록** 더 강한 ‘심상적, 전체적 또는 집단적 학습스타일’이다.

※ (검사 점수의 이해) • 학습스타일의 각 과정요소에 있는 두 가지 스타일은 ‘대조적’이다.

그러나 우리들 대부분은 이들 두 가지 스타일을 어느 정도는 모두 다 가지고 있다.

- 그러나 대개는 어느 한 가지 스타일을 더 선호하고, 그것을 거의 습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어떤 스타일을 더 선호하여 사용하는 정도가 ‘약한’(보합적인) 사람도 있고, 이와는 달리 ‘강한’ 사람도 있다.
- 먼저 자신의 스타일은 어떤 것인지를 확인한다. 그런 다음 자기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강점’은 무엇이며, 또한 ‘약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발견한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선호하는 학습스타일이 얼마나 ‘강한’ 또는 ‘약한’(보합적인) 것인지를 알아보아야 한다.
 -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과는 대조적인 스타일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를 확인한다. 그래야 학습의 과정에 작용하는 스타일들을 전체적으로 인식하고 접근할 수 있다.
 - 자신과는 ‘대조적인’ 스타일을 의식적으로 익히는 것이 바로 자신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다.
 - 어떤 스타일이 더 효과적인지는 장면과 과제의 성질과 요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학습 요소별 스타일의 내용

1. 과정요소 #1(지각/이해 양식의 선호)의 두 가지 스타일

(1) 언어적 스타일

* 특징적인 모습: <강점>

- 읽고, 보고, 듣기 하는 정보를 단어, 문자 또는 숫자 등과 같은 언어적인(어문적인) 것으로 생각한다.
 - 단어와 같은 언어적인 것으로 서로 연상하면 이해와 기억이 잘된다.
- 공부하는 내용을 글로 쓰거나 말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 단어나 문자 등을 사용하고 있는 언어적인 아이디어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배경지식과 통합하여 추론하고 유추하기를 좋아한다.
- 듣거나 했던 말을 쉽게 떠올리며, 이러한 이유로 쓰기와 설명이 많은 수업을 선호한다.
- 노트하거나 메모하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기억이 잘 된다.
 - 쓰기를 하면서 단어를 드러다 보는 과정 자체가 거기에 대한 기억을 향상시킨다.
- 기억을 해 낼 때는 머릿속에서 페이지를 찾아가 그 속에 있는 단어들을 살펴본다.
- 학교에서 읽기하는 숙제가 있거나 텍스트 중심적인 이런닝 환경(e-learning)에서 공부하는 것을 좋아한다.

- * <약점> · 공부 과제의 전체에 대한 심상(이미지)을 그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
 -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 내용이 신선하고 강력하지 못할 수 있으며, 따라서 공부에 흥미가 덜할 수 있다.
 - 마음속에서 떠올리는 '심상'(이미지)은 대개 매우 생생하고 강력하다.

* 묻고 대답해야 할 '질문'들:

- 무슨 의미(뜻)인가?
- 어떤 단어(개념)들이 떠오르는가?
- 뜻이 통하는가?
- 내용들의 서로 간에 '연결'이 되는가?
- 자신의 말로 해 보면?
- 어떻게 요약(정리) 할 수 있는가?

(2) 심상적 스타일

* 특징적인 모습: <강점>

- 새로운 정보(내용)에서 '정신적인 이미지'(image, 심상)를 만들면 이해하고 기억하는 것이 잘된다.
 - '정신적 이미지'란 머릿속에서 만들어 낸 '그림'이며, '심상'(心像)이라 부르기도 한다.
- 그래프, 도표, 또는 그림 등의 시각적인 자료들이 있으면 이해가 더 쉬워진다.
- 머릿속에서 '그림'을 떠올려 보면서 이해하고 생각하기를 좋아한다.
- 마치 웹브라우저(web browser)를 사용하듯이, 하나의 이미지에서 다른 이미지로 이동하면서 내용들을 서로 '연결' 시킨다.
- 내용을 시각적인 '심상'으로 이해하기를 좋아할 뿐 아니라 '마인드 맵'과 같은 시각적인 그림이나 그래픽으로 표현하기를 선호한다.
- 학습하는 정보의 전체를 병렬적으로 한꺼번에 같이 처리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윤곽, 구조)을 쉽게 그릴 수 있다.
- 시각적인 심상(이미지) 뿐 아니라 미각, 청각 또는 촉각 등과 같은 기타의 감각 양식의 이미지도 쉽게 떠올린다.

- * <약점> · 정신적인 심상은 전체적이지만 상세하지 못하기 쉽다.
- 언어적인 자세한 내용이 필요 할 수 있다.
- 추상적인 자료들은 머릿속의 그림으로 심상화하기가 어렵다.
- 자료의 내용 보다는 인상이나 이미지에 의존하여 판단하기 쉽다.

* 묻고 대답해야 할 '질문'들:

- (내용들을 머릿속에서) · 머릿속으로 그림으로 그려보면? 실제로 그림을 그려 보면?
-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면?
- 정신적인 '그림'으로 떠올려 보면?
- (머릿속의) 그림(이미지)들은 얼마나 생생한가? 어떤 것들이 새롭고, 더 분명해 지는가?
- 정신적인 그림들을 차례대로 넘겨보면?

2. 과정요소 #2(정보처리 방식의 선호)의 두 가지 스타일

(1) 분석적 스타일

* 특징적인 모습: <강점>

- 내용(정보)이 간단하고, 구체적일 때, 그리고 하나씩 차례대로(단계적으로) 제시될 때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기억한다.
- 공부를 차례대로, 직선적으로, 계열적으로 그리

(2) 전체적 스타일

* 특징적인 모습: <강점>

- 먼저 '개념적인 구조'를 이해할 때 내용을 더 잘 이해하고 기억한다.
- 내용(정보)에 대한 전체적이고, 일반적인 느낌이나 시각/의견을 먼저 생각한다. 그런 다음

- 고 점차적인 순서로 전개해 가기를 좋아한다.
- 과제/숙제를 시작하기 전에 필요한 사실과 세부내용들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 보다 빨리 그리고 보다 쉽게 이해한다.
- 내용/정보와 증거와 사실들이 뒷받침되어 있는 것을 선호한다.
- 이유와 논리를 사용하는 설명(또는 텍스트)을 선호한다.
-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다소간 ‘흑백 논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경향이 있다. 정리 정돈과 질서 정연한 것을 가치롭게 여긴다.
- 부분들의 내용을 전체와는 비교적 독립적인 것으로 다루는 경향이 있다(강 독립적인 경향성).

- * <단점> · 부분적인 세부내용에 너무 집착하여 전체적인 모습(경향, 형태, 결론)을 간과하거나 왜곡할 수 있다.
- 극단적으로 분석적 스타일의 사람은 지나치게 부분에 집착하기 때문에 인상주의 미술작품 또는 점(點)으로만 그려져 있는 그림 등과 같은 것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 전반적인 결론/윤곽을 만들거나 유추하는 것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
- 한 토픽에서 다음 토픽으로 직선적으로, 질서 있게 진행해 가는 경향이 있다.
- 전체적 스타일의 사람과도 어울려 보고 같이 일해 보는 것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 이들은 너무 자세하고 많은 사실들을 원하지 않으며, 번덕스러워 보일 수도 있다.

* 묻고 대답해야 할 ‘질문’들:

- 어떤 내용들이 있는가?
- 또 다른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어떻게 차례대로 나열할 수 있는가?
 - 사실, 이유, 보기, 세부내용 및 논거 등을 정리한다.
- 어떻게 분류(묶음, 범주화) 할 수 있는가?
- 어떻게 순서대로 정리할 수 있을까?
- ‘왜’ 그런가? 어떻게 ‘그런가?’
- 그러므로 어떻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가?(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 전체적 스타일의 친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해 보면?

이러한 전체의 구조 속에 부분의 내용들을 맞추어 넣는다.

- 그러나 전체를 이해하고 나면 보다 분석적, 계열적으로 접근해 갈 수 있다.
- 공부를 큰 틀에 따라 전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수행해 가기를 좋아한다.
-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다소간 추상적인 방식을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 여기저기로 쉽게 점핑(jumping)하고 이동한다.
- 광범위한 정보들을 이해하고 그것을 간략하게 논리적인 형태로 정리하는 것을 좋아한다.
- 행간(行間)을 읽고 서로 간의 ‘관계’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
-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 다소간 ‘회색적이며’, 정리 정돈이 좀 느슨해지기 쉽다.

- * <단점> · 큰 그림을 서둘러 먼저 그리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이 제대로 맞아 떨어지는 지를 보지 못하기 쉽다.
- 전체의 결론이나 구조에 부분의 세부내용들을 무리하게 맞출 수도 있고, 그리고 부분들의 내용이 제대로 뒷받침 안 되는 결론을 성급하게 내릴 수도 있다.
- 뒷받침하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는데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거나, 유추를 부적절하게 할 수 있다.
- 분석적인 스타일의 사람과도 어울려 보고 같이 일해 보는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다.
 - 이들은 너무 꼼꼼하고 자세하여 인내가 필요할 수도 있다.

* 묻고 대답해야 할 ‘질문’들:

- 전체적인 뼈대(구조, 형태, 흐름, 경향 등)는 어떻게 되는가?
- 전체에 대한 ‘감’(感, 느낌)이 잡히는가?
- 주요 내용들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 단어를 사용한 리스트로, 또는 마인드 맵 같은 것으로 정리하면?
- 부분들이 서로 ‘연결’되는가?
- 어떻게 ‘요약’할 수 있는가?
 - ‘결론’은 무엇인가?
- 어떤 새로운 생각(아이디어)들이 떠오르는가?
- 분석적 스타일의 친구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설명해 보면?

3. 과정요소 #3(활동환경의 선호)의 두 가지 스타일

(1) 개인적(활동) 스타일

* 특징적인 모습: <강점>

-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한다.
 -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오랫동안 상호작용하

(2) 집단적(활동) 스타일

* 특징적인 모습: <강점>

- 크고 작은 집단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작업하는 것을 좋아한다.

- 면 쉽게 피로하고, 생각하고 집중하는 능력이 떨어진다.
- 마음 맞는 한두 명의 친구들과 함께 공부/작업하기를 선호한다.
- 집단 협의에서는 먼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한 다음 비로소 집단 앞에서 발표를 한다.
- 수업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야기(정보)를 들은 다음, 잠시라도 혼자서 작업하면 더 많이 성취할 수 있다.
- 자신의 직관과 통찰을 믿으며, 자신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 충고나 비판도 조용히 혼자서 피드백 받는 것을 선호한다.
- 혼자서 조용하게 작업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룹에도 불구하고 팀워크의 가치를 인정하고 팀활동 하는데 반드시 소극적인 것은 아니다.

- * <단점> ·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공부/작업하는 것이(공동작업, 협동작업) 어색하고 즐겁지 않을 수도 있다.
- 집단의 작업에 소극적이란 인상을 주기 쉽다.
- 사전에 떠올린 자신의 아이디어를 변형하고, 남의 아이디어에 충분히 개방적이지 않는 경향이 있다.
- 완벽하지 아니한 아이디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보고 나누어 보도록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 묻고 대답해야 할 ‘질문’들:**

- 조용히 생각하고 집중하는가?
- 먼저 혼자서 생각해 보고, 그런 다음 아이디어를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 집단적/외적 스타일의 다른 친구들과도 같이 공부하고 일하는 경험을 갖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 그러면 일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하는 일에 집중이 더 잘 된다.
- 집단에서 상호작용하고 같이 계획하고, 일하고 어울리는 것을 가치롭게 여긴다.
- 공동과제 또는 사회적 및 대인간 문제나 이슈(쟁점)를 다루는 것을 선호한다.
-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비교적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는 편이다.
-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고, 그리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더욱 다듬거나 쉽게 바꾼다.
- 다른 사람이 가이드하는 것을 따르거나, 또는 익숙한 방식으로 일처리하는 경향이 있다.
- 다른 사람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 * <단점> · 개인적으로 깊게 생각하기 보다는 남들의 생각, 아이디어에 편승하는 경향이 있다.
- 집단에 동조하여 따라하는 경향이 있다.
- 자신의 강점이나 가치를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무시하거나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
- 자신의 생각을 반성해 보는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려고 노력한다.
- 이러한 시간은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거나, 자신을 반성하거나, 또는 고독을 즐기는데 매우 필요할 수 있다.

*** 묻고 대답해야 할 ‘질문’들:**

- 집단 또는 팀의 일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친구들과 같이 할 수 있는가?
- 때로는 개인적/내적 스타일의 다른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고 일하는 경험을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 (학습스타일의 활용과 개발) · ‘자신이 선호하는’ 스타일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 자신이 잘하는 것을 살려 더욱 잘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학습스타일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첫 걸음이고 기본이다.
- 자신의 스타일과는 ‘대조적인’ 스타일을 의도적으로 연습하여 사용해 봄으로서 그것을 익히려고 노력한다.
 - ‘대조적인’ 스타일을 의도적으로 노력하여 익힌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스타일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고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 처음에는 좀 불편하고 힘이 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은 매우 보상적일 것이다.
- 과제의 요구와 사용하는 스타일이 서로 맞아 떨어지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한다.
- 학습스타일을 개발하는 목적은 학습하는 과제의 성질과 요구에 따라 적절한 스타일로 쉽게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 두 개의 대조적인 스타일은 서로 반대적이지만, 서로는 모두가 필요하다. 성공적인 학습자는 이 둘을 마치 자전거의 두 바퀴처럼 쉽게 이동하여 하나의 전체로 사용할 줄 안다.